

기호론적 관점에 기초한 홀로코스트 건축의 상징성 분석

-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유대인 박물관을 중심으로 -

The symbolism analysis of Holocaust architecture on the basis of semiotics point of view

- Focus on Daniel Libeskind's Jewish Museum Berlin -

이승연* / Lee, Seung-Yeon

이성훈** / Lee, Sung-Hoon

Abstract

Clearing trace of symbol which was gone with a series of pre-modern architecture history since the modern architecture (pursuing true nature from tradition which is repeated and imitated unconsciously). That is, What is the course of deconstruction?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We still accept the necessity of decoration in spite of its existence at one time being threaten. This means, even though symbolism in architecture has relative importance by situation of Tim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to add the past to current style through 'Symbol'.

The history of Times, a carrier which reflects Present on New Futures, makes memory by gathering data but we can not amplify our historical imagination with only data. Data is a past memory and evidence but we can not substitute that for historical experience. And It is difficult for future generations who don't live through that history to change their historical recognition with recollecting memories. They have to draw history with data but it is very limited in itself. However, They can collect historical memory through symbol in architecture.

In this study, We pay attention to the symbolism of a memorial hall architecture. So We'll analyze dichotomy concept of Barthes's signifiant and signifie, visual sign and course of symbolic meaning on basis of Daniel Libeskind's Jewish Museum.

키워드 : 홀로코스트, 다니엘 리베스킨드, 상징성, 기호학, 의미작용

Keywords : Holocaust, Daniel Libeskind, Symbolism, Semiotics, Signific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근대 이후의 건축에서, 그전까지 계속되어온 일련의 역사과정(시대정신으로서 표현되어온 양식)인 상징의 흔적들을 걷어내는 즉,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고 모방되어온 전통으로부터의 본질을 추구하는 해체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건축을 통해 '상징'이라는 하나의 記意(signifie)가 과거를 지속적으로 현재의 모습 위에 얹어놓으며,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의미와 표현특성이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서 시대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의 역사는 자료들을 동원하여 그 기억을 만들어 주지만 자료만으로는 역사적 상상력을 증폭시키기 어렵다. 그

러나 건축은 '상징'을 통해 역사적 기억 또한 담아 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적 기억을 담아내는 공간적 장치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기념관 건축에서 발현되는 상징성에 주목하고자한다. 이는 기념관 건축이 역사적 성찰과 함께 가져야 할 기억을 재생시키는 방법에 있어, 역사에 대한 능동적인 리얼리즘을 유도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며,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징성을 도출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기호론의 의미작용 체계가 건축과 환경 그리고 공간의 사유와 존재 사이의 거리를 매워주며 상호 보완성을 갖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억을 담아내는 공간적 장치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이 구성화 되고 배열되는 과정에서 건축물마다 상이한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홀로코스트 건축으로 강한 기념비성을 가지며, 상징의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한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전공 석사수료

** 이사,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1946-)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1989-99)의 공간 구축적 코드¹⁾를 범주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대인 박물관이 가지는 공간의 상징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 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징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기호론에 근거한 실증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기호학에 있어서 상징은 기호의 내포적인 의미 즉, 기의(시니피에)²⁾ 라는 용어의 범주로써, 건축에서 나타나는 상징 표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좋은 분석의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바르트³⁾(Roland Barthes, 1915-1980)의 기호 체계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유대인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기념비적 건축의 상징성

2.1. 근대 기념비적 건축의 상징성

기념비적 건축(Monument)이란 직접적으로 기념 건조물, 기념비, 기념탑, 표당, 납골당 등 과거의 사건, 사업 및 죽은 사람의 유업을 기념하거나 고인의 신령을 제사 지내고 그 유품을 진열하기 위하여 세운 건조물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기능상으로는 기념의 행위를 담지 않더라도 이념성 및 조형성이 강한 다양한 용도의 건축을 일컫는 말로서 현대에 와서 더욱 포괄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건축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과거의 건축은 정체(政體)의 표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정체가 누렸던 영화의 표현이었으며, 정권수립의 개가(凱歌)를 위한 하나의 의식(儀式)이었다. 당시의 건축물은 주로 왕궁, 신전, 능묘(陵墓), 성채(城砦), 원형경기장과 탑, 요새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정치와 결탁하게 되어 나타난 건축물들은 정치권력의 신하로서 때로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써 그 시대 시대의 정치에 대한 봉사를 하면서, 시대의 상징성을 담으며 기념물의 형태로 계승되었다.⁴⁾

2.2. 현대 기념비적 건축의 상징성

근대이전과 현대의 기념비적 건축에 대한 의미를 비교해 보자면, 근대 이전에는 이데올로기의 표현, 종교와 의식의 장소, 비인격성을 통한 공경유발을 표방하였고 정치적 수단으로 상용되어 사회 통합이나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사용이 배제된 것은 아니고 상업주의의 표현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추가되었지만, 기념비적인 건축이 갖는 상징성을 이용하여 공공을 위한 여러 용도의 대규모 건축물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건축물들이 지어지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념비적 건축의 적용범위가 현대에 와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중세 도시에 있어서 교회와 광장, 시청사 등이 해왔던 도시 기념비의 역할을 현대에 와서는 도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세워지는 건축물들이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념비성을 나타냄으로서 대신하고 있다. 이들 도시 기념비적 건축물은 강한 상징성과 조형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며 도시와 국가의 대표적 상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념비적 건축의 상징성은 건물의 건립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작품성을 인정받거나 그러한 형태의 원형이 되는 경우와, 그 곳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또는 검증을 통하여 기념비성을 획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로는 미스의 시그렘빌딩, 꼬르뷔제의 롱상교회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로는 20세기의 가장 심오한 기념비라 일컬어지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홀로코스트 관련 건축물들, 그리고 인류에게 원폭의 참상을 경고하는 히로시마 원폭관련 기념관 등이 있다.⁵⁾

즉, 현대의 기념비적 건축이란 기념비처럼 영구적 가치가 있는 건축과 표지적(標識的)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⁶⁾

3. 건축의 상징성 해석을 위한 기호체계

3.1. 건축의 상징체계

건축에서의 상징은 유사성, 상호관련성을 갖지 않는 두 사물을 매개하는 인식의 형식으로서 의미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개념전달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유와 존재 사이의 거리를 매워주는 도구가 된다. 즉, 건축가에 의해 구현되는 의도와 구현된 구체적 건물형상(공간) 사이에서 상징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관조자들은 건

1) 박물관 공간의 상징성 분석을 위해서는 구축적 코드의 범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홀로코스트 건축으로서 강한 기념비성을 가지는 홀로코스트 타워, 출입구가 되는 지하 연결통로, 비 가시성의 가시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VOID, 공간과 전시물, 그리고 공간의 기본 구축요소인 바닥, 벽, 창을 구축적 코드로 범주화 하였다.

2) 기표(signifiant)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 요소로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기의(signifie)는 기호가 대변하는 정신적 개념으로 의미되어지는 내용으로 의미작용의 결정적 요소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동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기호의 의미는 기표와 기의의 연결 관계 즉 '의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3) 바르트는 기호에 있어 사회·문화적 관습과 경험이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기호의 의미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쉬르가 사용한 의미작용이라는 용어에 '문화적 가치의 차원'을 추가했다. 즉, 기호학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의미의 사회적 차원으로 기호학을 확장시켰으며 분석의 결과들이 현대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고 제시했다.

4) Gio Ponti, 건축예찬, 김원역, 열화당, 1986, p.25.

5) Edwin Heathcote, 「Monument Builders」 Academy Editions, 1999.

6) 김용식, 현대 건축의 기념비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1999.

축물에 의도된 다의적 양상을 관습이나 역사성을 통해 인지하게 된다. 이것이 건축에서의 상징성이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다.⁷⁾

현대건축에서 상징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는 상징의 정의와 같이, 단일의미를 넘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유와 깊이를 가질 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에 표현된 상징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행위는 문화를 인식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3.2. 바르트의 의미생성의 구조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는 주로 언어체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 또는 메시지 내의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작용⁸⁾이라 보았다.

이러한 소쉬르의 입장은 기호에서 만들어지는 의미 내지는 다른 기호와의 관계성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기호에 있어 사회·문화적 관습과 경험이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기호의 의미가 창출되는 지에 대한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⁹⁾

반면에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이런 개념을 확대하여 한 문화 속에서 기호들이 의미를 창출하는 방법에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소쉬르가 사용한 의미작용이라는 용어에 '문화적 가치의 차원'을 추가했다. 즉, 기호학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의미의 사회적 차원으로 기호학을 확장시켰으며 분석의 결과들이 현대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고 제시했다.

바르트의 의미화 단계는 간단하게 '의미의 생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외시(denotation)와 공시(connotation)라는 개념이 있다. 먼저 외시(외연적 의미)란 기호 내의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1차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외연적 단계에서 창조된 의미인 기표는 2차 의미화 단계를 거치면서 공시(함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 의미화 단계는 문화적 가치를 추가한 '신화' 차원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 등과 같이 한 문화에서 그것이 갖는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 것으로 '상호 연결된 공시적 개념의 연쇄'이며, 환경의 상징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타당성을 마련해 준다.¹⁰⁾ 바르트의 신화개념을 포함한 기호의 의미작용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호의 의미작용 모델

1. 기표	1. 기의	= A 기호	----> 외시(1단계 의미화)
B 기호	2. 기표	2. 기의	----> 공시(2단계 의미화)
C 기호			----> 신화 (이데올로기 개념)

3.3. 건축의 기호체계

건축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기호체계는 표현의 기호체계와 해석의 기호체계로 형성된다. 두 기호체계는 '기호의 대상체로서 실체'와, '기호의 지시체로서의 건축'을 공유한다. 차이는 기호학적 관계로서의 의미를 표현체계에서는 '건축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며, 해석체계에서는 '해석자의 경험의 결과'를 의미로 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호란 실체가 지닌 의미로서 존재해왔으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 상징적 건축, 기념비적 건축은 바로 이 두 체계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건축가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없는 절대적인 개념의 체계에서 만들어진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축물로 인정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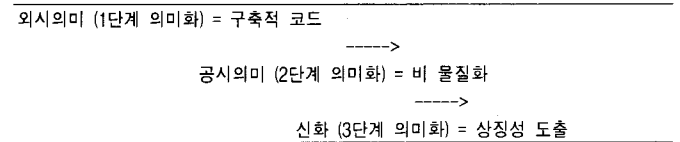
따라서 표현의 행위체계와 해석의 사고체계가 부재하는 곳 즉, 자아의 구축가능성과 개념에 의한 해석 가능성이 배제된 곳에서부터 상징적 건축의 기호체계가 시작된다. 이 사실은 절대적인 상징으로서 성스러운 인간의 행위와 사고, 감각 너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이러한 표현과 해석의 두 기호체계는 상징이 절대적인 가치로서 강력한 힘을 지니게 해준다.

4. 사례 분석

4.1. 상징성 분석을 위한 기호체계의 의미작용 모델

박물관 공간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구축적 코드는 1단계 의미화를 통해 외시의 의미를 갖으며, 공시의 의미를 갖는 2단계 의미화를 거치면서 비 물질화 되고, 마지막 3단계 의미화 과정을 통하여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바르트의 의미화 단계를 바탕으로 한 공간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2> 상징성 분석을 위한 3단계 의미작용 모델



4.2. 공간의 상징성 분석 과정

- 7)이관석, 현대 박물관 건축에 나타나는 상징성의 유추 근거와 구현 방식, 2004.
- 8)기호의 '의미작용'은 메시지의 전달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생성되는 요소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의미작용은 커뮤니케이션의 큰 개념으로 기호학에서는 기호의 의미작용을 전제로 의미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 의미전달은 의미작용의 다원성이 단일성으로 축소된 형태이며, 메시지(message)라는 기표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의미작용과는 서로 다른 현상이다.
- 9)Fiske. J.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Methen, 1982, p.50.
- 10)R. Barthes. 「Mythologies」. L. Annette, (trans.) New York : Hill and Wang, 1983, p.115.
- 11)Mircea Eliade, 상징·신성·예술, 박규태, 서광사, 1999, pp.187-225.

박물관 공간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구축적 코드의 의미작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 홀로코스트 타워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홀로코스트 타워	대학살 기념탑	
비 물질화		
기표	기의	
차가운 느낌의 콘크리트, 수직으로 좁고 길게 찢어진 창으로 스미는 한줄기 빛	암흑, 공허	
상징성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부재의 공간		

<표 4> 지하 연결통로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지하 연결통로	지하를 통하여 다니는 길	
비 물질화		
기표	기의	
기존의 베를린 박물관에서 증축된 전시공간으로의 이동통로, 출입구	베를린 역사에 이어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축'	
상징성		
베를린 전체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유대인의 존재,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하는 시간의 흐름		

<표 5> VOID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VOID	빈 곳, 공백, 공허감	
비 물질화		
기표	기의	
내부 공간에서의 깊은 VOID	침묵의 공간, 비 가시성의 가시화	
상징성		
베를린과 유대인의 삶, 지우는 동시에 상기되는 '부재의 현존'		

<표 6> 공간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공간	전시를 위한 영역	
비 물질화		
기표	기의	
연속된 빈 공간	지워진 생명들의 부재의 공간	
상징성		
이데올로기에 희생되며 사라져간 유대인의 부재이자 베를린 역사의 빈 공간		

<표 7> 전시물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전시물	전시하여 놓은 물품	
비 물질화		
기표	기의	
높고 긴 벽과 날카로운 선이 있는 공간 바닥에 설치된 얼굴 형태의 엽전	밝고 지나가면 들리는 유대인들의 함성, 아픔, 공포	
상징성		
잔인한 홀로코스트의 상흔과 공허, 시공간을 넘은 청각적 교류		

<표 8> 바닥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바닥	평평하게 넓이를 이룬 부분, 물체의 밑 부분	
비 물질화		
기표	기의	
매끄럽지 않고 바로서지 않은 바닥	추방과 이민의 고통을 감지	
상징성		
베를린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의 난파선 같은 운명		

<표 9> 벽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벽	집이나 방 따위의 돌레를 막은 수직건조물	
비 물질화		
기표	기의	
전시장 내부의 두 개의 벽 사이 위쪽에 새겨진 이름들	홀로코스트 희생자 이름들	
상징성		
허공 속에 재현된 비극		

<표 10> 창문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의미작용 과정

이미지	구축적 코드	
	기표	기의
창	공기와 햇빛을 유입하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개구부	
비 물질화		
기표	기의	
칼자국처럼 생채기처럼 날카롭게 찢겨져 난 창을 통해 스미는 한줄기 빛	침묵, 희망	
상징성		
정신적 교류		

4.3. 공간의 상징성 분석 결과

분석결과로 나타난 구축적 코드들의 상징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의 콘크리트로 만든 홀로코스트 타

위는 텅 빈 공간에 수직으로 좁고 길게 찢어진 창으로 스미는 한줄기 빛을 더하면서 2단계 비 물질화 단계를 거치고, 암흑과 공허의 공시의미를 가지며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부재의 공간을 상징한다.

② 지하 연결통로는 기존의 베를린 박물관에서 새로 증축된 유대인 박물관으로 진입하는 이동통로이자 출입구로써, 2단계 비 물질화 단계를 거치면서 베를린 역사에 이어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축'이라는 공시의미를 가진다. 이는 베를린 전체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유대인의 존재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하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③ 빈 곳, 공백이라는 외시의미를 가지는 보이드(void)는 내부 공간에서 깊은 보이드를 만들며, 침묵의 공간을 통한 비 가시성의 가시화라는 공시의미를 갖는다. 이는 베를린 유대인의 삶, 그리고 지우는 동시에 상기되는 '부재의 현존'을 상징한다.

④ 영역이라는 외시의미를 가지는 연속된 빈 공간은, 2단계 비 물질화 단계를 거치면서 지워진 생명들의 부재의 공간임을 드러내고 이는 이데올로기에 희생되며 사라져간 유대인의 부재이자, 베를린 역사의 빈 공간을 상징한다.

⑤ 전시물은 전시하여 놓은 물품이라는 외시의미에서 2단계 비 물질화 단계를 거치면서, 밟고 지나가면 들리는 유대인들의 함성, 아픔, 공포를 드러낸다. 이는 잔인한 홀로코스트의 상흔과 공허를 상징하며, 시공간을 넘은 청각적 교류를 위한 장치이다.

⑥ 매끄럽지 않고 바로서지 않은 바닥은, 2단계 비 물질화 단계를 거치면서 추방과 이민의 고통을 감지한다. 이는 베를린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의 난파선 같은 운명을 상징한다.

⑦ 공간 구축적 코드 벽은 집이나 방 따위의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으로써의 역할보다,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전시물로 2단계 비 물질화 단계를 거치면서, 허공 속에 비극을 상징하고 아픔의 기억을 드러낸다.

⑧ 공기와 햇빛을 유입하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개구부로서 외시의미를 갖는 칼자국처럼 생채기처럼 찢겨져 난 창은, 2단계 비 물질화 단계를 거치면서 스미는 한줄기 빛을 통한 침묵과 희망의 공시의미를 갖는다. 이는 유대인과의 정신적 교류를 상징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홀로코스트 건축물인 유대인 박물관이 가지는 공간의 상징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호론적 관점에 기초한 기호체계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공간 구축적 코드의 상징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징성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홀로코스트 건축인 유대인 박물관에서 기념비성을 도출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 수단으로, 기존의 공간 구축적 코드들의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념관 건축이 역사적 성찰을 통해 기억을 재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역사에 대한 능동적인 리얼리즘(사실주의 양식으로 획일화된 조형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 구축적 코드에 성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판단 할 수 있겠다.

둘째, 공간의 상징성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방법은 공간을 이루는 환경을 복합적인 사회·문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들의 구성체로 이해 가능케 해주었고, 이를 통해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는 기호론의 의미작용 체계가 건축과 환경 그리고 공간의 사유와 존재 사이의 거리를 메워주며 상호 보완성을 갖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한다.

기호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유대인박물관의 상징성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는 홀로코스트 건축물들이 내포하는 기념비적 상징의 특성들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Edwin Heathcote, 「Monument Builders」 Academy Editions, 1999.
2. R. Barthes, 「Mythologies」. L. Annette, (trans.) New York : Hill and Wang, 1983
3. Mircea Eliade, 박규태 역, 상징·신성·예술, 서광사, 1999.
4.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
5.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 건축, 현대건축사, 2002.
6. 김용식, 현대 건축의 기념비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1999.
7. 김범석,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유대인 박물관에 표현된 축의 개념에 대한 공간구조적 분석에 관한 연구, 2003.
8. 장정제, 건축언어의 범주와 체계구성에 관한 연구, 2006.